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384)

1절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하리라

2절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일 당한때도 족한 은혜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절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고 할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435장)

1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절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3절 어둔 골짜기 지나 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후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가정예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살전 5:13)



추석 가정예배

2026년 하반기에도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두고 살기를 다짐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다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함께

기 도 가족 중에서

성경말씀 고린도후서 9:8-10 설교자

8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9 기록된 바 그가 홀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설 교 의의 열매를 거두는 가정 설교자

찬 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함께

주기도문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의의 열매를 거두는 가정_(고후 9:8-10)

추석은 한 해 동안 뿌린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함께 나누며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이룬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채워
주신 은혜가 훨씬 많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사랑과 섬김의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시다.

1.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8절)

우리 삶의 시작에는 언제나 먼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
지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께서 지키시고 채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쁜 날에도 은혜가 있었고, 어렵고 힘든 날
을 견딜 수 있었던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
서 우리를 넉넉하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
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
려보내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2. 은혜의 씨앗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시다 (9-1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심을 수 있는 씨앗도 주시는 분
입니다. 10절은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라고 말씀합
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건강과 재능,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씨앗입니다. 씨앗을 손에 쥐고만 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듯이 받은 은혜도 사랑과 섬김으로 나누어야 열매가 됩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헌신이 하나님 앞에
심는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은 씨앗을 자라게 하셔서 “너희 의의 열
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가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받은 은혜를 기꺼이 심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정
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짐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헌신의
열매로 완성됩니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가 받은 복만 헤아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
나님께 받은 은혜가 자라나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는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가는 곳과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마다 사랑과 섬김의 헌신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거두기시를 축복합니다.